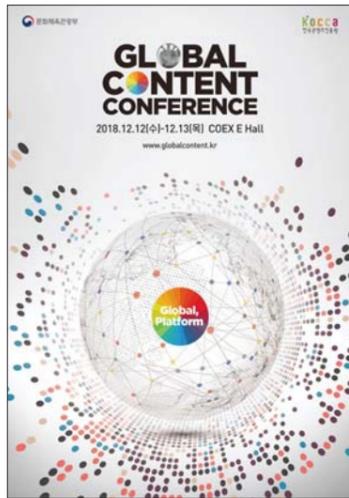


# '콘텐츠, 세상을 하나로 잇다'

12~13일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서울 코엑스서 개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이 비즈니스 성패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 콘텐츠가 플랫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주관하는 '2018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가 오는 12~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열린다. 글로벌 콘텐츠산업과 플랫폼의 미래를 조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콘텐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콘퍼런스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해외진출 교류회 ▲비즈매칭 등으로 구성된다. 콘퍼런스는 유엔(UN)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 제롬 글렌(Jerome C. Glenn)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한다. 제롬 글렌은 지난 20여 년간 매해 <유엔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를 집필하며 미래전략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경제·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본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의 아시아 총괄 부사장 앙투안 나자렛(Antoine Nazaret)과 FOX사의 디지털·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다니엘 킴(Daniel Kim)이 각각 방송영상 콘텐츠, 레거시 미디어와 글로벌 플랫폼, '할리우드, 콘텐츠 서비스의 새 영역을 맞이하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를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아시아 OTT 시장 등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행사 당일 총 10개 강연이 펼쳐진다. 13일에는 국내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특별 세션도 열린다. '글로벌 진출, 해외비즈니스센터와 함께 합시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는 ▲일본, 유럽, 인도네시아, UAE 진출 전략 발표 ▲중국 및 미국 콘텐츠 시장 변화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콘진 황선혜 일본 비즈니스센터장, 김남길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장, 박상욱 UAE 마케터가 현지 상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해 업체들에게 생생한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콘퍼런스가 개최되는 양일 간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자문을 위한 비즈매칭이 마련된다. ▲콘텐츠 유통 및 제작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을 비롯해 ▲법률, 지적재산권,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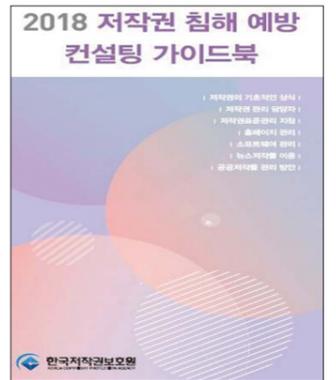


이뤄진 찾아가는 비즈니스 상담 ▲현지 권역별 전문 마케터의 해외진출 컨설팅이 진행되는 1:1 수출상담 등이 운영된다. 2018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식 누리집(<http://www.globalcontent.kr/>)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뉴스

## 저작권 관리와 이용법 총 망라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발간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5일 '2018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기관의 운영에서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슈가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와 이용에 대한 안내서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저작권보호원은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며,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문화정보원의 참여를 통해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저작권 기초 상식, 저작권 관리 담당자, 저작권 표준관리 지침, 홈페이지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뉴스 저작물 이용, 공공저작물 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보호' 역할을 담당할 가이드북의 발간은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분쟁으로 인한 권리자와 이용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국내외의 모든 기관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매년 관련 정보를 보완하고, 보호원의 열린상담실을 통해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예방 체계를 갖춘 기관은 '저작권OK' 지정을 통해 무료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2018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은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http://www.kcopa.or.kr)) 또는 저작권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http://www.copyrightok.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뉴스

## 무주군 문화가족의 날, 한 해 성과 나누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 우리 같이 즐겨요

8일 식전공연부터 작품 전시까지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서 개최

제30회 무주군 문화가족의 날 행사가 오는 8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과 최북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무주문화원(원장 맹갑삼)이 주관해 열리는 이날 행사는 2018년 진행된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과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오전 10시 30분부터 가락장구와 통기타, 우쿨렐레, 시낭송 공연이 펼쳐지며 11시 30분부터는 시상과 수료증 전달 등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문화원 관계자는 "문화학교 올 1년 성과가 담긴 자리"라며 "많은 이들이 격려해주시고 준비된 많은 공연과 작품들도 함께 관람해 주시길"고 전했다. 최북미술관 1층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캘리그래피와 수묵화, 사진, 아크릴페인팅, 양말인형과 퀼트, 수채화, 서양자수 작품들과 만날 수 있으며 바리스타 시음회도 마련된다. 무주문화원 문화학교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과정으로, 올해 328명이 등록해 가락장구와 가족공예, 캘리그래피, 바리스타, 사진,



수묵화 아크릴 페인팅 등 14개 강좌를 수강했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배우며 준비한 자리라 설레고 기대가 된다"라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 해봐야겠다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피아니스트 이제찬과 함께 하는 영화와 오페라 속 인문학 이야기

12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인문콘서트 개최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오는 12일 저녁 7시, 향토회관에서 영화와 오페라가 담고 있는 삶을 책과 함께 이야기하는 2018 인문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피아니스트 이제찬을 비롯해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들을 초청한다. 이제찬은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하고 리베아트센터 예술감독 및 LAYO 지휘자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클래식 음악과 인문학을 주제로 150여회가 넘는 콘서트를 운영했다. 초청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보경은 '따뜻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자'로 윤이상 콩쿠르 1위 및 모스콥카 필하모니, 민원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등 국내외에서 뛰어난 연주력을 인정받았다. 1부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에서 '전세계를 울린 위대한 사랑'과 '오랜바흐의 뱃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짚어 본다. 2부에서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비롯해 헨델과 베르디 등 친숙한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순창군립도서관은 이번 콘서트가 일상 속에



색채와 향기를 더해 지역문화의 역량과 주민들의 긍지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 200명에게 신간도서를 선물로 증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650-5678)로 문의하거나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lib.sunchang.go.kr](http://lib.sunchang.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원원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